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든다

교회 성장에 대한 조급증. 목회자라면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이다. 또 교회가 분열과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떤 목회자라도 사역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전주사랑의교회 장관익 목사는 교회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 제자훈련 목회철학만 붙들었다. 그 결과, 전주사랑의교회는 느리지만 건강한 교회를 향한 확실한 걸음을 걷고 있다. 상처가 가득했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로 바뀐 전주사랑의교회 현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관익 목사는

전남대 법과대학과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11년간 부교역자로 섬겼고,
현재 미국 Fuller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중이며,
전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저마다 다양한 방법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목양지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든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것도 아니다. 교회의 건강은 전적으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렸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도가 자신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 현장 이야기의 주인공인 전주사랑의교회(담임 : 장관익 목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현장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출발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에서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척 초기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중 대부분은 기존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전주사랑의교회로 이동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개척 후 3년 동안 심한 내홍을 겪었으며, 그 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전주사랑의교회는 비로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교회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도대체 전주사랑의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승화하려고 노력한 전주사랑의교회의 지나온 발걸음을 소개한다.

한 사람 철학을 배우다

전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한 장관익 목사는 옥한흠 목사 밑에서 십여 년간 부목사로 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옥 목사 밑에서 제자훈련을 배웠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은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진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장 목사가 전주사랑의교회를 개척했던 것도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전주사랑의교회 개척예배를 드리면서 장 목사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에 목숨을 걸어라. 절대 다수가 아니다. 목회자의 양심이 숫자에 움직여 버리면 그 때부터 목회자는 변질된 것이다' 라고 말한 옥 목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가르치던 옥 목사

처럼 자신도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장 목사는 '제자훈련만 붙잡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부산 호산나교회, 서울 장충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등 사랑의교회 출신 선배 목회자들은 장 목사에게 그런 확신을 갖게 한 모델이었다. 장 목사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제자훈련만 제대로 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였는지, 개척 첫 주부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250여 명이 모였으니 지방 교회로서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장 목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목회를 축복하시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교회는 금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외적인 조건도 좋았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온 성도들 대부분이 전주사랑의교회를 제자훈련 하는 교회로 알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장 목사는 "당시 등록한 교인의 90% 이상이 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이동한 수평이동 신자들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울 사랑의교회 출신 목사가 전주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사랑의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때 등록한 성도들 중 대부분은 이미 기존 교회에서 집사 이상의 직분을 맡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장 목사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성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제자훈련을 통해 치유해주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에도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장 목사의 착각이었다.

"물론 그분들이 제자훈련에 대해 열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장 목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에 어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약 50여 명이 3~4개월에 걸쳐 매주 3~5명씩 우리 교회로 옮긴 일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장로와 권사 등 중직자들도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때문에 개척 초기에 교회가 급격하게 자리를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이분들을 제 목회의 동역자로 여기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 1기와 2기를 진행했습니다.

장관익 목사는 '제자훈련만 붙잡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개척 첫 주부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250여 명이 모였으니 지방 교회로서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타 교회 출신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끼리 모여 다니고 그래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 목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혜를 얻기 위해 옥한흠 목사를 찾았다. 그런데 그는 옥 목사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저는 옥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훈련시켜서 교회의 리더로 잘 세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좋으니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와도 융화될 수 없다는 게 옥 목사님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는 옥 목사의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신뢰했었거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철학을 이들과 나누면 이들도 건강한 성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안 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찾아온 이상 그들 스스로 여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자훈련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성장이나 부흥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너무 빠른 부흥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 그 강력한 유혹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성장이 아닌 철학을 붙잡으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옥 목사의 충고는 정확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전주사랑의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 목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제자훈련은 전주에서 통하지 않으니 자신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우선 자신들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도들을 내보내라는 것이 그들의 제안이었다. 자신들과 함께하면 부흥은 문제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장 목사는 그 순간 성장에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질을 붙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나가십시오. 저는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고, 나는 여러분이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장 목사가 분명하게 거절의 사를 밝히자 그들은 1주 만에 교회를 모두 나가버렸다. 그렇게 한꺼번에 50명이 교회를 떠나자 교회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온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거나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는 소문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훈련 하는 목사, 사랑의교회 옥 목사 제자도 별반 다를 바 없네'라는 이야기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순장들까지 그 소문에 흔들렸

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순장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디다. '도대체 이 길이 맞는 건가?', '우리가 저 목사님을 따라가도 되는 건가?' 라면서 순장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몇 순장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순장이 나가니까 순원들까지 따라 나가더라는 거지요."

총체적인 위기였다. 장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선택했는데, 성도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장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렇게 물밀 듯이 들어왔던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을 장 목사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한번 휘청하니까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옥 목사님께 장황하게 편지를 썼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짧게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길을 가다 보면 푸른 초장도 있고 쉴 만한 물가도 만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라' 고요."

옥 목사의 이 짧은 편지 한 장이 장 목사에게는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제자훈련에 집중했다고 한다.

"옥 목사님의 편지는 목회자로서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이지요. 성장이 아닌 본질, 철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본질을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회자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설명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제 경우에는 그게 안 됩디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없이, 아무 반응 없이 꾸준히 제자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약을 먹듯이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고 옥 목사님의 광인론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데로 눈을 돌릴 틈이 없더라고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사역에 집중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회복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강기장 집사는 당시 장 목사의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의 모습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것이 많았어요. 목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늘 바빠서 성도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죠. 하지만 장관익 목사님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목회자의 모습을 장 목사님은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장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장 집사의 말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박병기 장로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온 교회가 소문에 의해 흔들리고, 순장들마저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때에도 우리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문이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온 힘을 기울여서 훈련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제자훈련 목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와 함께라면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의외로 아직까지도 제자훈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훈련은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훈련이다', '제자훈련 하는 교회는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한다', '제자훈련 받아도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다' 는 식의 오해들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굳이 제자훈련에 목숨을 거냐고요."

장 목사는 제자훈련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제자훈련만 받으면 사람들이 확확 변할 줄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훈련 1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신앙생활의 습관이 쉽게 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확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자훈련이 중요한 것은, 훈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지요. 정작 제자훈련 받는 그 시간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 목사는 목회자가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생각해보세요. 훈련을 시켰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옥 목사님 말씀대로, 미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해야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에게 인생을 걸고 함께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3기 수료생인 서경희 권사는 장 목사의 말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학생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봐도 리더들이나 목사님이 멤버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오픈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늘 정답만 이야기하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장관익 목사님은 늘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셨어요. 약점과 부족한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내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는 '우리도 목사님처럼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1기 제자반 김종련 권사도 서경희 권사와 비슷한 말을 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러저러한 성경공부를 많이 참석해봤습니다. 그러나 장관익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자훈련은 그런 성경공부와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가장 다른 점은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자기오픈을 하지 않는데 반해, 장 목사님은 자신

의 단점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삶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장 목사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모습을 통해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장 목사님의 그런 모습에 감동하고 그 본심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싶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서경희 권사는 장관익 목사의 모습을 통해 장 목사가 자신들을 진짜 동역자로 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서경희 권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훈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것은 내려놓지 못하면서 훈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지요."

먼저 교회론이 바뀌어야 한다

제자훈련을 통한 변화와 관련하여 장관익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에 대해 인식되었던 초점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흔히들 제자훈련 하면 삶이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옥한흠 목사님이 주장한 제자훈련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변하고, 교회의 변화를 통해 지역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목회자가 훈련생과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철학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렇다면 장 목사는 자신이 말한 것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저는 제자훈련 중간 중간 시간을 내서 훈련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밤새도록 교회와 목회철학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마치 옛날 대학 시절에 엠티를 가서 밤새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 시간에 제가 꿈꾸는 교회와 목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생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거기에 제가 솔직하게 대답도 하고, 설명도 해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훈련생과 일종의 교감을 나누는 거지요. 훈련 시간에는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이런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생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평범한 평신도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를 놓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장 목사는 순장들과도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순장들과의 시간에는 주로 교회의 방향성과 사역의 정책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장 목사는 순장들에게 '전주사랑의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교회'라는 철학을 심어주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시간을 계속 갖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성도들의 생각이 참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을 동역자라고 부르지 말래요. 자신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양떼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전히 전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마쳐도 제자훈련 목회철학에서 말하는 동역자로서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었던 분들도 사실 제자훈련은 했지만 교회론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변화된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

자신을 동역자가 아닌 양떼로 불러달라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한없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장 목사. 그러나 그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에 보응하듯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단지 그들 개인의 삶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장 목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성도들은 모델을 보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훈련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관익 목사는 그 예로 김종련 권사를 소개했다.

"김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잃고 두 아이와 함께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기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으셨는데, 훈련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전선으로 나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중에 교회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순장으로 다락방도 두 개나 섬기고, 중보기도팀 팀장으로 중보기도모임을 이끌고, 또 교회 안에서 본인처럼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혼자 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책임지셨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 시간에 가정을 제쳐두고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정에도 집중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강조하지요.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에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김 권사님은 가정보다는 교회를 더 우선시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특수학교 교사인 딸도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잘 가고, 또 서울에 있던 아들도 좋은 곳에 취직되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정말 권사님이 가정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다락방 순원 중에 '나도 훈련받고 우리 순장님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싶다' 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김종련 권사의 이야기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주셨다는 김 권사의 삶의 간증은 전주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다.

"훈련받은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기쁨인 형제들' 이 아닐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평신도 모델들이 그 안에 많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개척 3개월 만에 전주사랑의교회가 2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곧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었다는 장관익 목사. 그러나 그로부터 3년 간, 자신이 원래 꿈꾸던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몇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통과 아픔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장 목사는 침묵하며 제자훈련에 집중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안정

을 되찾기 시작했다.

올해로 개척 8년째인 전주사랑의교회는 현재 주일 낮 예배에 약 35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개척 초기 경험한 성장세와 비교하면, 지금은 아주 천천히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장관익 목사는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다.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교회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는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지요. 그들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전주사랑의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장관익 목사와 전주사랑의교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이야기하는가? 성장에 목말라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분열과 상처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주사랑의교회의 이야기가 나침반과 처방전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순종 목사〉